



명태군 게이트는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 **김건희 공천개입 증거 확보한 검찰은 김건희를 즉시 소환 수사하라!** **국민의힘은 명태군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김건희의 국정농단 증거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앞에 멈춰선 검찰!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해야 하는데 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하십시오.

아주 최근! 김건희가 제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건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개입도 뭉개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역시 명태군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의 11번 전화·문자는 무엇인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군의 제22대

총선거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거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3월 초에 김건희는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에게 4차례 전화를 걸고 김영선 의원이 7번 김건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곳곳에 김건희 그림자!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에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 여사 조언에 따라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급히 언론에 발표하고, 그 발표 기사를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여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휴대폰을 압수하라!

그런데도 김건희를 조사하지도 휴대폰을 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김상민 관계를 공개하라!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태균씨 변호인에 따르면,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 창원 의창에 김상민 검사를 쫓으려고 했고, 김영선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김상민 검사는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김건희라인 낙하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김건희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 돈 봉투, 고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건넨 돈 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을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명태균의 진술과 납부 내역도 제출받았으며, 명태균 핸드폰에서 ‘코바나컨텐츠’가 찍힌 돈봉투 사진도 나왔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태용과 김건희 관계를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12.3 계엄 전날에서 당일 사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명태균이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시점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이미 김건희에게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한 이유가 녹음파일 때문은 아니었는지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가 내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중앙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명태균 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즉각 소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오세훈·홍준표의 거짓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과의 관계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첫째, 명태균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이 중식당,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의 4번 만났고, 김한정씨와도 3자 회동을 했으며,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조사는 왜 안나오냐’고 물었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둘째,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에 참여했던 여태형 변호사는 2023년 중순경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이 대화를 나눈 카톡 등이 황금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홍준표 아들이 2023년 5월 15일 명태균에게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할 일은 없을 거라는 내용의 지역지 기사를 보내면서,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고, 또 대구시가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태균에게 주겠다고 보냈으며, 며칠 뒤 이를 받은 명태균이 “감사하다”고 하자,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답한 카톡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역할을 확인했음에도 묵인했던 국민의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고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5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추가 기자회견문>

어제(20일), 명태균이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대선출마하면 나를 고소한다고?” 라며
“명태균과 한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닌가?” 라고 발끈했습니다.



홍준표

방금 · 🌐



명태균과 한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닌가?

명태균과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던지 했을거 아닌가?

나는 지난 대선경선타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 입니다.

도대체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 한일도 없는
가짜인생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사건에 왜 내 이름이
거론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 한다고?

또 무고로 징역 추가로 받을 겁니다.

이런者は 내일 또 추가 고발하는 모질이 변호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뭘니까?

2014년 3월, 중소기업융합 경남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에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축하하는 바로 옆 단상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
명태균 아닙니까?

그 때는 몰랐다고 할겁니까?



과거 언론보도들을 보면 명태균이 당시 주최 측인
중소기업융합 경남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하니 명태균과 함께 찍힌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래도 발뺌할 겁니까?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거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며 국민을 우롱한다면 이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첨부>



▲ 홍준표 시장 아들이 23년 5월 15일과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에서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해당 페스티벌로 추정되는 포스터
- 2023년 5월 20일 ‘2023 powerful K-트로트 페스티벌’